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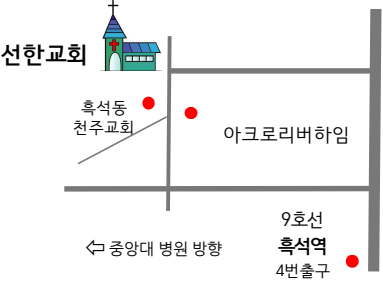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월-금요일 새벽 5:30	비전워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리장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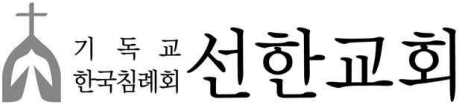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담임목사 임춘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찬 양 과 경 배	315장 (통일찬송가 512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삼상 31:1~6	
성 경 봉 독	요한삼서 1장 1~15절			
설 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임춘배 목사)			
헌 금	헌금송 : 백미경, 최은주, 김은정, 김미양 집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오세영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3장 1~19절		
설 교	죄의 본질과 결과 (임춘배 목사)		
찬 양	찬송가 397장(통일찬송가 454장)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7~3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드보라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성 탄 절 행 사	1) 22일(주일) 오후 예배 성탄 칸타타 2) 24일(화) 오후 8시 성탄 전야제 3) 25일(수) 오전 11시 성탄 축하예배 * 성탄절 행사에 지인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 소 년 부 새 벽 송	12월 24일 새벽송 신청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자 선한 교우 가정에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24일 전야제 후 출발, 신청 가정이 많을 경우 방문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	--

가정예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찬송 :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통115) 본문 :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탄 기사가 없습니다. 마가는 배경 설명 없이 ‘복음’이라는 화두로 곧장 직진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가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묵상하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euangelion)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식이 왜 좋은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제국에서는 유앙겔리온이 황제의 신격화와 관련해 사용됐습니다. 특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신의 통치가 로마제국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좋은 소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소아시아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비문은 이런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비문에는 “신(황제)의 탄생은 세상에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문장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와 같은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대단히 도발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의례가 아니라 제국의 통치 기반을 이루는 사상적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황제의 거짓 평화와 본질에서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의 태평성대(Pax Romana)는 억압과 폭력으로 유지됐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를 회복하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왕이나 권력,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인 돈과 성공에 대한 충성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충성 대결’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행 16:31)고 선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제국 당시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주(kyrios)라 부르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많은 고난과 순교를 감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세상의 거짓된 권력과 충돌하며 우리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요삼 1:1~15)
서 론	성도들은 모두 진리를 위해 함께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진리를 위한 협력 (1) 요한서신의 관계: ①요일:하나님과의 관계(성도와의 관계) ②요이:대적(이단)과의 관계 ③요삼: 동역자와의 관계 (2) 진리 안에서 동역하는 법: ①동역자를 축복함(2절) ②형제 곧 나그네 된 자(순회전도자)들을 도움(5~8절) ③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음(11절) 2. 교훈 (1) 진리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법은? (3) 진리를 위해 내가 동역하고 있는 것은?
결 론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김재준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오세영 집사	배미자 집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온 세상을 유혹한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	날짜 : 12월 16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본문	요한계시록 17:1~6		
말씀요약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를 봅니다.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그 여자는 음행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고,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묵상질문 1	큰 음녀가 받을 심판 17:1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벨론은 어떤 제국인가요? 나는 돈, 성, 쾌락, 권력 등이 주는 매력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묵상질문 2	바벨론의 죄 17:2~6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7장 6절 악은 그 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해 성도의 눈을 곧잘 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역시 화려한 의상과 빛나는 보석으로 성도들의 눈을 홀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은 온갖 매력적인 말과 약속으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해 즐거워하는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진리로 충만해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정욕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물질과 쾌락을 좇으며 음란함에 취해 있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강력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매 순간 저를 믿음 위에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지금, 거기서 나오라!”	
찬양과 기도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새 322)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2022년 1월 11일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 공사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지지대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2023년 4월 29일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층 지붕 층과 2층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도 부실 공사가 문제였는데, 놓아야 할 자재(전단보강근)를 빼고 건물을 올려 하중을 버틸 힘이 없었던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서 잘 지은 듯 보이는 건물도,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힘을 주는 뼈대에 문제가 있거나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기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물질,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세상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삶은 인생의 광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신앙은 뼈대가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나요?
말씀나누기	요한계시록 18:1~8
묵상포인트	헛된 번영과 거짓된 안전을 보장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을 따르도록 현혹하는 세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사치·방탕·음란·우상 숭배·교만 등 온갖 죄악의 온상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할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알게 된 성도는 지체하지 말고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기쁨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소망해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성도는 죄의 세력과 손잡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이 기다리는 바벨론을 속히 떠나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관찰과묵상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은 무엇인가요?(1~3절)
적용하기	거짓된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번영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른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천상의 영광송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	날짜 : 12월 20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본문	요한계시록 19:1~10		
말씀요약	요한은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묵상질문 1	할렐루야 찬미 19:1~5 하늘의 수많은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찬양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어린양의 혼인 잔치 19:6~10 어린양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족한 나를 어린양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이 계시 전달자인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그리하지 말라.”라며 거부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4:10)라고 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물질, 권력, 쾌락 등을 경배하는 이 시대에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옳은 행실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매일 Q.T.		짐승의 운명, 영원한 패배와 멸망	날짜 : 12월 17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본문	요한계시록 17:7~18		
말씀요약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장차 무저갱에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짐승은 어린양과 싸우겠지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양이 이기실 것입니다. 짐승과 열 왕은 음녀를 미워해 망하게 합니다. 짐승이 자기 뜻대로 행함은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17:7~13 짐승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일시적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묵상질문 2	어린양의 최후 승리 17:14~18 어린양이 최후 승리자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7장 16~17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자들도 때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악을 행할 뿐입니다. 음녀가 악의 세력에 배반당하고 살육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조장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성도는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위협적이어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양께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어린양을 따르며 신실하게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명령, “바벨론에서 떠나라”	날짜 : 12월 18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본문	요한계시록 18:1~8		
말씀요약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천사는 만국을 음행과 사치에 빠뜨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 바벨론에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합니다.		
묵상질문 1	또 다시 선포되는 바벨론의 멸망 18:1~3 천사가 전하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의 부를 추구하거나 사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묵상질문 2	바벨론을 떠나라 18:4~8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내가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최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8장 7~8절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지하고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악한 무리는 참회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면, 그들은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영역 안에 머물게 합니다. 성도는 절망뿐인 삶에 소망을 주는, 온전한 참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음행과 사치로 가득한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속히 나오라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매일 Q.T.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	날짜 : 12월 19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요한계시록 18:9~24		
말씀요약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치부하던 땅의 상인들과 바닷사람들이 바벨론에 임한 심판을 보고 애통합니다. 바벨론은 바다에 건져진 맷돌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바벨론 멸망과 세 편의 애가 18:9~20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오래도록 쌓은 부와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황폐해지는 바벨론 18:21~24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8장 20절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통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은혜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자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가차 없이 집행됩니다. 끝내 악을 멈추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무엇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성도는 악인의 강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솔직히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부를 갖고 싶었습니다. 세상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랐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안달하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